

포교원 전국포교국장연수 열어

1월 15~16일 한국문화연수원서

전국 교구본사 포교국장 스님들이 모여 지역전법 활성화를 논의하는 자리가 열렸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원)은 1월 15~16일 한국문화연수원에서 전국포교국장연수를 개최했다.

이번 연수에는 포교부장 송묵 스님, 포교국장 노후 스님, 신도국장 덕산 스님 등을 비롯해 용주사 덕본 스님, 월정사 법은 스님, 범주사 도암 스님, 마곡사 호선 스님 등 15개 교구본사 포교국장 스님들이 참석했다.

연수 첫날에는 운영회 포교차장의 '지역전법활성화를 위한 방안과 과제' 주제 발표와 함께 '포교사단과 교구본사 연계 활성화' '학생·지역포교·경승실 활성화 방안' 등을 주제로 한 토론이 이어졌다. 둘째 날에는 '포교원 생산 프로그램·콘텐츠 안내' '지역포교와 관련한 연구의 제 설정' '불교대학 관리체계 개선' 등을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다.

운영회 포교차장은 주제발표에서 "교구본사 포교국은 교구관할내 계층포교를 중심으로 한 포교조직 지원과 신도조직 교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원)은 1월 15~16일 한국문화연수원에서 전국포교국장연수를 개최했다.

육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며 "하지만 실질적으로 교구포교국 업무매뉴얼 및 프로세스가 정형화되지 않아 교구본사 주지 스님의 의지와 포교국장의 역량에 따라 업무범위가 설정돼 있다. 특히 관할 지역의 중점성 및 포괄성으로 지역포교에 대한 정책과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미약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이어 윤 차장은 "포교원은 실질적인 교구의 역할을 중심으로 지역전법을 추진하기 위해 올해 사업기조를 '교구중심의 지역포교 기반 구축'을 핵심전략으로 설정하고 본격적인 사업들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나은 기자

제36회 만해백일장 열린다

3월 1일 오전 10시부터 동국대서

대한불교청년회(회장 전준호)는 오는 3월 1일 오전 10시부터 동국대 중앙강당 등에서 3·1 민족자주 독립선언 96주년 기념 제36회 전국 만해백일장을 개최한다.

전국의 백일장 가운데 가장 많은 인원인 2천여명이 참여하는 이 행사는 시·시조와 산문 부문으로 나뉘어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일반부 별로 진행되며, 참가대상은 초등학생 이상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이나은 기자

현장접수는 당일 오전 9시부터 동국대 중앙강당에서 신분증을 지참하고 접수하면 되고, 사전접수는 2월 10~21일 온라인(www.kyba.org)으로 가능하다.

만해대상(대통령상)과 만해상(국회의장상) 수상자 각 1명에게는 각 100만원과 50만원의 상금이, 장원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상, 여성가족부장관상, 서울시장상, 강원도지사상, 충남도지사상, 동국대총장상 등과 상금 20만원이 수여된다. 이나은 기자

인드라마, 인문학 중심 '심심학교' 연다

3~11월 2학기에 걸쳐 운영

불교 철학과 실천방식을 바탕으로 인간을 이해하고 타인을 대하는 자세를 배우는 인문학 교육과정이 마련된다.

인드라마생명공동체체는 오는 3월부터 11월까지 2학기에 걸쳐 '인드라마 심심(禪心)학교'를 연다.

인드라마 심심학교는 마음을 살펴 존재의 실상을 깨닫고 자존감과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인문학강의들로 구성됐다.

심심학교는 3월 5일 입학식을 시작으로 매주 목요일 저녁 7시30분부터 2시간 동안 강의를 진행한다. 1학기는 스노어를 통해

본 사람(인남곡 연찬문화연구소 이사장) △유식을 통해 본 마음(목경찬 불광교육원 전임강사) △마음챙김(김중목(인드라마수련원강사) △만다라 그리기 명상(김영옥 한국만다라미술심리연구원장)으로, 2학기는 △마음챙김과 삶(인드라마생명공동체 상임대표 도법 스님) △대법처경의 마음챙김(초기불전연구원 지도법사 각목 스님) △평화롭게 대화하기(김정란 부타의 대화연구소장) 등의 주제로 열린다.

또한 매 수업 후 30분 정도 당일 수업에 대한 '마음나누기' 시간이 있으며, 9월 27~29일 2박 3일 수련회도 참가하게 된다. (02)576-1886 이나은 기자

불교교리 공부하고 영어도 덤으로

조계종 포교원 주최 자타카 암송대회

"Once upon a time, Mr. Monkey was living by himself near a riverbank(옛날 옛적, 원숭이 한 마리가 강가에 살고 있었습니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원)이 주최하고 국제포교사회(회장 신외균)가 주관한 '제8회 영문 자타카(Jataka) 암송대회'에서 어린이들의 영어 암송이 울려 퍼진다.

쌀쌀한 겨울날씨였던 1월 1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자타카 대회에 참가한 어린이들은 원어민에 버금가는 발음과 언어구사력으로 부처님의 전생이 담겨 있는 자타카(본생경)중 하나를 영어로 외워 암송했다.

이번 행사는 2,8대 1의 경쟁을 뚫고 예선을 통과한 17명의 초·중등학생이 본선에 올라 저학년부(4학년 이하 초등학생)과 고학년부(초등학교 5학년~중학교 3학년)로 나뉘어 각자의 실력을 뽐냈다.

무대에 선 어린이들은 이야기에 적합한 의상을 비롯해 동물 모자나 가면, 장갑과 인형 등 성실하게 소도구를 준비해 이야기를 풍부하게 했다. '원숭이와 악어대갈'의 이야기를 구연한 한주형(수원 용주사) 어린이는 원숭이가 가면을 쓰고 직접 만든 스토리보드를 선보이며 이야기를 풀어나갔다. 고등연 어린이는 왕 코스프레를 하고 '개의 왕



무대에 선 어린이들은 이야기에 적합한 의상을 비롯해 동물 모자나 가면, 장갑과 인형 등 성실하게 소도구를 준비해 이야기를 풍부하게 했다.

초·중등학생 17명 본선진출

의상·가면 준비해 이야기 전달

김서연·문상연 어린이 대상 수상

은동' 이야기를 관객들에게 소개했다. 참가 어린이들은 다양한 표정과 행동으로 객석에 앉은 부모님과 심사위원, 지도 선생님에게 부처님 전생을 전했다. 봉사사 출신의 김서연(양대초 2학년)은 깎뚝한 표정과 화려한 의상으로 객석의 환호를 샀다.

함께 참석한 학부모와 정중들은 어린이들이 실수할 때는 안타까움을, 잘 하는 아이들에게는 놀라움과 부러움을 객석에서 퍼뜨려 박수와 환호로 표시했다. 각 사

장에서 온 어린이법회 도반들은 친구가 출전할 때마다 피켓을 들고 열띤 응원을 하는 등 자타카 암송대회의 열기를 한껏 더했다.

2시간 여의 경연이 끝나고 지난 해 우승자인 구도는 어린이가 앵콜공연을 펼쳤으며, 재밌는 두뇌게임을 결정한 레크리에이션과 심사평, 시상 등으로 행사가 이어졌다. 이날 심사위원으로는 신외균 국제포교사회장과 시공 부로, 조현수와 이원리가 참여했다.

시공 부로는 심사위원을 대표한 심사평에서 "정말 Wow(와우)라고 밖에 할 말이 없다. 여러분 모두 자신감 있는 태도로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모두에게 성공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대상 수상자는 'A Man Named

Wise(현명한 이 라는 이름을 가진 남자)'으로 출전한 김서연(대도초 2학년)어린이와 'Mr. Monkey and Sir Crocodile(원숭이와 악어대갈)'편을 선보인 문상연(명원초 6학년)어린이가 대상 상장과 상품으로 '아이패드 미니'를 각각 수상하는 영광을 차지했다.

이밖에도 서울 국제선센터 정성이 어린이와 화성 용주사 한주형 어린이가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본선진출자 전원이 우수상과 문수상, 보현상 등 상장과 상금을 받았다.

고학년부에서 대상을 수상한 문상연 어린이는 "올해 처음 참가했는데 부모님께서 말씀을 교정해주시고 도와주시면서 상을 받았다"며 "자타카에 교훈이 많이 담겨 있어 영어공부뿐 아니라 불교공부도 같이 할 수 있어 좋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저학년부 대상 수상자인 김서연 어린이는 "엄마가 자타카 대회에 나가보는게 어머니고 해서 참가하게 됐다. 연습을 많이 했는데 대상을 받게 돼 기쁘고 뿌듯하다"고 말했다.

신외균 국제포교사회장은 "자타카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기까지 무수한 과거 생을 보살로 계시면서 수행하고 공덕을 닦아 나가던 과정을 이야기 하고 있다"며 "효도, 정직, 인내, 배움, 자비 등 부처님의 가르침과 삶의 지혜 등의 내용이 담긴 자타카를 통해 어린이들이 부처님 정신과 유능한 외국어 구사능력을 갖추어 세계중심국가의 동량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부탄 행복한 삶의 방식 배우는 길 열린다

부탄교육부·교불련 1월 12일 교사 교환 MOU 체결

행복지수 1위를 차지한 부탄의 행복한 삶의 방식을 한국 교사와 학생들이 배우는 길이 열린다.

전국교사불자연합회(회장 이경훈, 이하 교불련)와 부탄교육부(장관 상가이 잠), 주한 부탄문화원(원장 출림농부)은 1월 12일 부탄의 수도인 팀푸 교육부 청사에서 교사 교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번 체결을 통해 부탄교육부는 자체 개발한 국민행복지수(GNH) 교육연수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부탄 교사 2명을 6개월간 한국에 파견하게 된다.

부탄과 교불련간 교환교사 프로그램 운영 주체를 맡은 부탄문화원은 토요일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에 양국 교사의 다양한 활동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양 국가의 소통을 위해 적극 후원하기로 약속했다.

부탄 교육부장관 상가이 잠은 "부탄은 부탄국민이 삶을 행복하게 하는 기술을 터

득해 국민행복지수(GNH; Gross National Happiness)를 높일 수 있도록 초·중·고·대학생, 성인을 위한 행복교육 모듈을 개발했다며 "부탄은 한국의 교육열을 배우고, 한국은 부탄의 행복교육의 이념과 방법을 도입할 수 있을 것이기에 빠른 시일 내에 양해각서가 실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교불련 이경훈 회장은 "불교국가 부탄의 행복교육은 물질문화가 발달하고 과도한 경쟁으로 힘들어하는 한국의 교사, 학생, 국민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양해각서의 적극적인 이행을 약속했다.

부탄문화원 출림농부 원장은 협약서 체결식에서 "부탄은 불교의 가르침을 사회, 경제, 정치 전반에 폭넓게 적용시킨 유일한 나라다. 나라의 통치개념을 GNP와 GDP 등 물질적 기준으로 보지 않고, GNH라는 국민총행복지수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



전국교사불자연합회와 부탄교육부, 주한 부탄문화원은 1월 12일 부탄의 수도인 팀푸 교육부 청사에서 교사 교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기교 있다"며 "청소년 자살을 세계1위, 극심한 스트레스로 정신이 멎들어 가고 있는 한국에 부탄의 GNH개념을 교육의 최전선에 계신 교사불자회 소속 선생님들께 체계적으로 교육하여 진정한 행복의 가치를 배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교불련은 1월 5~15일 네팔과 부탄 불교성지순례를 다녀왔다. 네팔에서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보우다나트 불탑을 참배하고 티베트불교

의 닝마파의 법왕 딜고첸제 린포체로부터 관정의식을, 두빠까규파 법왕 갈왕독빠 린포체로부터 금강승불교 입문식과 귀의수계식을, 겐첵파의 켄 린포체로부터 '대승과 금강승의 비교와 중판사상'에 대한 법문을 청해들었다.

또한 부탄에서는 파로탁상사원 참배와 3년 무문관을 방문해 티베트불교의 정통명상법인 통린수행법을 지도받기도 했다. 이나은 기자

공 고

사단법인 한국불교미륵종 종헌 제83조의 규정에 의거 해중행위를 한 아래 자에 대해 본 종단 승적을 제적처분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아 래 -

법명	성명	법명	성명	법명	성명
영각	김형덕	대산	김성구	광명	박순전
혜법	김춘자	지운	최병열	수련	박복순
영운	강학문	만성	최정환	영경	신경하
영인	전정식	영탄	박승길	영성	이태열
영범	정장식	영빈	정병복	혜도	강문수
혜중	고재우	성공	최일환		

2015년 1월 20일

(사)한국불교미륵종 총무원장 권한대행 묘 각

안동 보경사 부설

정해학당 경전 수련회 "중론(中論)" 집중 강의

■ 내가 사는 이 세상이 모두 환상이라면?

할리우드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영화 장면이 아닙니다. "세상은 환(幻)"이라는 명제는 부처님께서 설해 놓으신 세상의 존재 원리입니다. 부처님이 정말 그랬을까? 세상이 모두 환상이라고 했던 말인가?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이 있습니다. 바로 용수 보살이 쓴 '중론(中論)'입니다. 정해학당 회원들의 수행 공간 '안동 보경사'는 올해 경전 집중 강의 수련회의 주제를 '중론'으로 정하고 2박3일간 하루 9시간 이상 중론에 폭 빠져 토론하고 강의를 듣는 시간을 마련합니다. 함께 하고자 하시는 불자들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 중론 강의를 하는 오경 스님은?

부산, 안동 정해학당 경전 강의, 서울 정해사, 대전구도회 금강경을 강의하시고, 철학 전공자답게 분석적, 논리적, 철학적 강의로 경전 공부 모임을 이끌고 있습니다. 특히 일방적 강의를 지양하고 수강생들과 함께 질의응답하고 토론하며 함께 진리를 찾아, 자연스럽게 공부의 깊이를 더해가는 열린 강의를 진행. 정해학당은 2009년부터 7년째 경전 공부를 꾸준히 이어오고 있습니다.

- ◆ 일 시 : 1차 - 2015년 2월 7일(토) ~ 9일(월) 선착순 15명
- 2차 - 2015년 2월 27일(금) ~ 3월 1일(일) 선착순 15명

◆ 장소 및 문의 : 안동 보경사 (경북 안동시 남후면 단호리 오미길 41 / 전화 054)842-4080

안동 보경사 부설 정해학당 상설강좌 안내

부산 정해학당

- ▶ 내용 : 화엄경 중 <여래출현품>
- ▶ 일정 :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 저녁 7시 ~ 9시 30분
- ▶ 인원 : 15명 내외
- ▶ 장소 : 부산해운대 마린시티 두산제니스

안동 정해학당

- ▶ 내용 : 월각경 <함허독품>
- ▶ 일정 : 매월 첫째, 셋째 금요일 저녁 7시 ~ 10시
- ▶ 인원 : 15명 내외
- ▶ 장소 : 안동보경사